

제 목 : 부산지역 인구구조 변화가 자영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한국노동연구원 안균원 부연구위원, 구자현 부연구위원, 성신여대 김민경 교수(경제학과)와 공동으로 「부산지역 인구구조 변화가 자영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음

* 본 조사연구는 지난 9월 23일(화) 개최된 「2025년 한국은행 부산·울산·경남본부 공동세미나」에서 일부 발표(주제발표 I)한 바 있으며, 이를 보완하여 최종보고서 작성을 완료

- 전체 보고서는 한국은행 부산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연구의 주요 내용은 <붙임>의 요약을 참고하시기 바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은행 부산본부 경제조사팀 최지영 과장

Tel : 051-240-3852 Fax : 051-240-3859 E-mail : bokbusan@bok.or.kr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보도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의 “지역본부-부산본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붙임>

부산지역 인구구조 변화가 자영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요약)

I. 연구배경 및 분석방법

□ **[연구배경]** 지역경제에서 서비스업 및 소비가 매우 중요한 부산지역은 빠른 고령화, 청년 유출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의 주요 축인 자영업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

⇒ ■부산지역 인구 및 자영업 구조 진단, ■부산지역 인구구조 변화가 자영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 ■향후 부산지역 자영업 규모 등을 전망한 후,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분석방법]** ①부산 16개 구·군 패널 분석*을 통해 청년 및 고령 인구 비중의 변화가 자영업 비율, 개업률 및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부산 지역 패널 회귀분석), ②전국 228개 시군구에 대해서도 유사한 분석*을 실시한 후(전국 패널 회귀분석) ③이를 장래인구추계와 결합하여 향후 부산 자영업자 수 및 개·폐업률을 전망(향후 부산지역 자영업 규모 추정 시나리오 분석)

* 분석에는 2010~2023년 전국사업체조사의 사업체 및 종사자 정보를 이용

II. 부산지역 인구 및 자영업 구조 진단

1 인구구조 변화 및 특성

□ 부산은 2010년 이후 청년층(15~34세) 순유출이 지속되어 청년인구 비중이 2010년 28.2%에서 2024년 21.1%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동 기간 중 11.3%에서 23.9%로 두 배 이상 확대

○ 부산 내 모든 구·군에서 청년인구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역경제의 역동성 약화, 노동 생산성 하락 등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됨

* 특히 영도구(26.1% → 16.6%), 동래구(28.6% → 20.3%) 등에서 큰 폭 감소

- 부산의 1인 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23.4%에서 36.4%로 급증하여 전체 소비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보건·식료품 등 필수재 소비 비중은 늘고 교육·음식·숙박 등 선택재 소비 비중은 감소하는 등 소비구조가 변화
- 이는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생산·부가가치·취업자 유발효과가 감소할 전망

2 자영업 구조 및 특성

- 최근 부산의 자영업은 고령 자영업자 비중 확대(2010년 7.0% → 2020년 14.2%), 고용창출형 자영업 감소(영세한 단독형 자영업 증가) 등 질적 구조 변화가 뚜렷
 - 업종별 특화도(입지계수)를 보면 전통제조업(신발·기계 등), 물류·도소매업 등은 전국 대비 특화, 정보통신·금융 등 고부가가치 산업은 열위
 - 산업집중도(HHI)와 다양성(엔트로피) 지수는 구·군별로 상이하게 나타나 일부 지역(중구·동구·수영구 등)은 특정 업종에 편중된 구조를 보이는 반면 여타 지역은 다양한 업종 구성을 유지
- 지난 10여년 동안 폐업률이 개업률을 상회하는 구조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신생기업의 생존율도 하락세를 보여 부산 자영업 기반이 약화
 - 업종별로는 도소매·숙박음식업에서 진입과 퇴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경쟁 과밀이 심화된 반면, 제조업은 개·폐업률이 낮아 안정적인 모습
 - 구·군별로는 인구규모가 작고 고령화율이 높은 원도심 지역(중구·서구·동구 등)은 진입과 퇴출 모두 둔화된 반면, 최근 개발과 인구 유입이 활발한 지역(해운대구·수영구 등)은 개·폐업률 모두 부산 평균을 상회

Ⅲ. 부산지역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

- **설명변수**는 청년(15~34세)·고령(65세이상) 인구 비중의 1기 시차, **종속변수**는 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와 동학을 반영하는 자영업비율(정태적 지표), 개·폐업률(동태적 지표)로 구성. **통제변수**로는 인구규모 변화(인구증감률), 경제력 수준(상대적GRDP), 산업집중도(HHI)를 포함 청년·고령 인구 비중의 시계열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연도 및 지역 고정효과를 포함한 **이원고정효과 회귀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연도그룹별('11~'14년, '15~'19년, '20~'23년) 이질적 효과 및 시간에 따른 변화까지 반영하기 위해 두 가지 확장 모형을 순차적으로 적용

[① 부산지역 패널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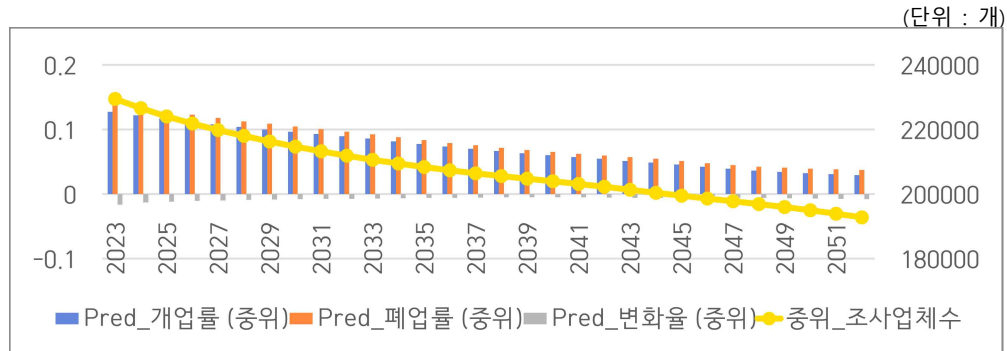
- **고령인구 비중 증가는 자영업 비율, 개업률 및 폐업률 모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인구 비중 감소는 일부 시기(2011~2019년)에서 자영업 비율 감소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인구 비중의 효과는 모든 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 자영업 규모 축소와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반면, 청년인구 비중의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되어 자영업과의 구조적 관계가 약화되었을 가능성**
-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상대적GRDP가 높은 지역)일수록 자영업 비율은 낮고 개업과 폐업이 활발한 경향을 보였으며, 특정 산업에 자영업이 집중된 지역(HHI가 높은 지역)일수록 개업이 보다 활성화**

[③ 향후 부산지역 자영업 규모 추정 시나리오 분석*]

* 분석③에 사용된 분석②에 대한 주요 결과는 '<참고> 전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자영업 개업 및 폐업에 미치는 영향' 참조

- **향후 부산의 자영업 규모(개인사업체 수)는 약 15.4% 감소(2023년 약 23만개 → 2052년 약 19.4만개)할 전망**
 - **고위 시나리오(인구구조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인구가 덜 감소)에서는 약 14.3% 감소(23만개 → 19.7만개), 저위 시나리오(인구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인구구조가 급격히 고령화)에서는 약 19.1% 감소(23만개 → 18.6만개)**
 - **개업률은 2023년 12.7%에서 2052년 3.3%로, 폐업률의 경우 14.4%에서 4.0%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부산시 개인사업체 수 및 개·폐업률 추계(2023~2052년)



자료: 전국 분석 결과와 장래인구추계(2022)를 사용하여 자체 추정

<참고>

전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자영업 개업 및 폐업에 미치는 영향*

- 전국 분석을 통해 부산의 분석 결과가 전국적인 맥락에서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자영업 개·폐업률에 미치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영향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부산의 장기 추계를 보다 신뢰성 있게 분석하기 위해 수행
- 고령인구 비중 증가는 개업률과 폐업률 모두를 감소시키는 반면, 청년인구 비중 증가는 개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개업률은 물가 및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증가, 실업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감소하고, 폐업률은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IV. 결론 및 시사점

- 부산은 다른 지역보다 빠른 고령화, 청년인구의 순유출, 1인가구의 급증 등 인구구조 변화가 개업률 하락, 생존율 저하 등 자영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인구구조 전환 속에서도 자영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량 근거 및 공간적 맥락을 고려한 질적 전환과 연령대별 다층적 정책 설계가 필요
 - 보건·복지, 고령친화식품, 생활·의료서비스 등 성장 가능 산업을 부산 자영업이 선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
 -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진 전통제조·물류 기반 자영업은 디지털 전환, 공동조달 시스템 등을 활용해 경쟁력을 유지
 - 원도심 지역은 공실 활용, 상권 환경 개선 등을 통한 활력 회복을, 신개발 지역은 안정적 운영 및 스케일업을 뒷받침하는 지원이 적합
 - 청년층에게는 필요시 질 높은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중장년·고령층에 대해서는 디지털화, 업종 전환, 공동물류·마케팅 등 안전망 구축을 강화